

錢 福



전남 전복산업 작년 2514억...10년만에 25배 성장 주력 수출품목 자리...젊은이들 U턴 '살아나는 어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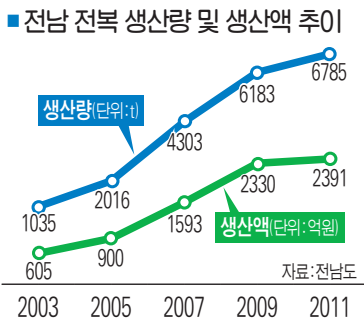
수산물 양식의 대표적인 전복산업의 성장세가 무섭다. 10년만에 국내 전복 생산액이 25배나 폭증해 세계 2위 생산국으로 성장하는 등 주력 수출품목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특히 국내 전복의 98%를 생산하고 있는 전남은 전복양식으로 역대 소득을 올리는 여가가 늘어나면서 전문직 출신의 젊은이들까지 귀어(歸漁)에 동참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전복양식이 돈이 되면서 어민 소득 증대-인구 증가-어촌 활력이라는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23일 전남도에 따르면 2001년 자연산과 소규모 양식으로 연간 95억에 101억원에 불과하던 국내 전복산업이 2011년 6941억에 2514억원으로 생산액 기준으로 25배나 늘어 중국에 이어 세계 2위 생산국이 됐다. 이 가운데 전남에서는 연간 6785억에 2391억원이 생산돼 전국대비 비중이 각각 98%(생산량)과 95%(생산액)를 차지하고 있다.

전복산업이 급성장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2001년 가두리양식이 보급되면서 대량생산 체제를 갖췄기 때문이다. 여기에 웰빙바람을 타고 국내에서 전복 소비가 늘고 수출물량 증가까지 더해져 전복산업의 급성장을 이끌었다. '공급이 늘면 가격이 떨어진다'는 경제논리가 있지만 전복은 공급량보다 수요량 증가 폭이 더 커 전복 가격이 꾸준히 오르고 있다. 10개 톤이 1kg의 전복 가격은 지난해 4만5000원인 것이 올해는 6만원까지 오른 상태다.

기업화·규모화로 어업인이 출자한 전복주식회사를 만들어 생산과 유통을 일원화 한 것도 성공 비결이다. 2009년 3월 어업인 615명과 완도군·완도수협이 설립한 완도전복(주)은 유통마진 개선과 담으로 없었던 물량을 줄이는 방법으로 설립 첫째 46억원이던 매출액이 2010년 150억원, 2011년 220억원으로 늘었다. 전남에서 연간 1억원 이상 소득을



올리는 2220 여가 가운데 전복양식 여가는 27%인 590 가구로 완도에만 76.4%인 451 가구가 있다. 이 가운데는 대기업 연구소나 서울 유명대학 로스쿨을 그만 두고 고향에 돌아와 전복양식으로 부를 일군 30~40대 젊은이도 있다. 완도 노화도는 전복 부자가 넘쳐나 고급 외제차만 36대에 달하고 육지에 나가 골프와 백화점 쇼핑을 즐기는 사람들로 넘쳐나고 있다.

전남 전복산업의 미래도 밝은 편이다. 중국을 비롯한 해외시장의 수요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200ha(60만평)의 대규모 전복 양식장을 조성해 종묘 생산에서부터 가공·유통에 이르는 일관체제를 갖출 계획이다.

이인곤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전복 양식업을 조성하면 연간 1000억에 500억원의 소득이 늘어나게 된다"며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전복 수출시장을 선점하는 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서부취재본부=정은조기자 ejchung@>



문화전당 건립 현장 공개 시민들에게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현장을 공개하는 탐방프로그램이 23일 공사 현장에서 열렸다. 탐방 프로그램은 신청을 받아 오는 11월까지 매월 첫째·셋째 화요일에 진행된다. <관련기사 12면> /N명주기자 mjna@kwangju.co.kr

“통합진보 비례대표 전원 사퇴하라”

광주시민사회 “재창당 수준 환골탈태로 진보의 가치 회복 나서야”

광주시민사회가 23일 통합진보당의 혁신을 위해 부실·부정 경선 의혹이 제기된 이석기·김재연 당선자 등 '경쟁부분 비례대표 당선자 전원 사퇴'를 요구하고, 당의 '환골탈태'를 함께 촉구했다. <관련기사 4면>

광주시민단체협의회와 광주·전남 여성단체연합은 이날 오후 광주YMCA 무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대 총선 비례대표 부실·부정경선의

혹을 둘러싼 논란은 사실 여부를 떠나 진보의 가치를 훼손하는 부끄러운 현실"이라며 "국민 앞에 용서와 반성을 구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경쟁부분 비례대표 당선자 전원이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진실규명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희생이 억울하고 부당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국민이 원하는 것

로 보인다"며 "절차적 민주주의에 의해 결정되고 중앙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구성된 혁신비상대책위원회의 권한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지난 4·11총선에서 야권 연대를 통해 당선된 오병윤(광주 서구 을) 당선자가 구 당권과의 중심인 당원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것에 불만을 표했다. 이들은 "일당 독주에 실망한 광주시민과 서구민의 지지를 받아 야권연대를 통한 정권교체라는 대의명분으로 당선된 오 당선자는 당의 공식 결정기구인 혁신비상대책위원회에 힘을 실어 당의 쇄신과 선부정 자체를 조자, 왜곡으로 돌아가는 것은 진보정치의 발전보다는 특정 정파의 기득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으

로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원희기자 cki@kwangju.co.kr>

오늘의 여수엑스포

> 관련기사 5면

박람회 개막의 밤은 인기 스타들이 선사하는 화려한 무대로 더욱 아름답다. 오늘 엑스포 가요페스타에는 가수 신해철과 신대철이 초대됐다. 천막극장이 주는 아련한 추억과 가수들의 열창이 어우러져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감동을 선사한다. 공연 시작 1시간 전에 극장을 찾자 무대와 가까운 좌석을 차지하는 게 요령.

- ◇엑스포 가요페스타-신해철·신대철(천막극장 오후 8시20분)
- ◇국가의 날-에코도르(엑스포홀·오전 10시)
- ◇이스라엘 문화공연 '쉐케탁'(해양광장·오전 11시부터 3회)
- ◇앙골라 문화공연(다목적홀·오후 2시)
- ◇에코도르 문화공연(엑스포홀·오후 6시)
- ◇지자체 날-대구시(천막극장·오후 4시)

▲어제의 관람객수=3만7142명(이하 22일 오후 6시 현재)
▲누적 관람객 수=46만1848명

학교설립 58주년(1954-2012)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 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전남대 총장에 박창수 교수 선출

전남대학교 제 19대 총장 선거에서 박창수(59) 의과대학 교수가 1순위 후보로 결정됐다. <인터뷰 7면>

전남대 총장임용추천위원회(이하 총추위)는 23일 실시된 선거에서 박창수 후보가 총 투표수 1759표 중 463표를 얻어 1위를 차지했으며, 이병택 후보가 430표로 2위를 차지했다

고 밝혔다. 총추위는 교육과학기술부에 제 19대 총장후보로 박창수 후보와 이병택 후보를 복수 추천하게 되며, 당선자는 교과부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제19대 총장 임기는 오는 8월17일부터 2016년 8월 16일까지 4년이

다. 박창수 총장 후보는 광주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전남대 의대·대학원을 거쳐 의과대학 학장, 대한병리학회 부회장, 의생명인력양성사업단 단장 등을 역임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ABC협회 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광주일보는 지역 대표 정론지입니다

토요일의 선풍,
The 멋진

어느 멋진 토요일 愛 음악회

5. 26(토) 저녁 7시
문화전당 광장 (구 전남도청 앞 분수대)

공·연·안·내

❖ 6월 23일 공연 ❖

“Fusion Classic-서로 다름이 하나되는 광주”
클래식퓨전, 일렉트로닉, 오페라와 팝의 퓨전

❖ 8월 25일 공연 ❖

“Soul of sound-아시아 혼의 두드림”
퓨전 타악 '얼쭈', '씨알누리 타악' 등 타악의 두드림

❖ 9월 22일 공연 ❖

“클래식 락 페스티벌-열광하라, 즐거워하라”
클래식과 락이 어루러진 열정의 페스티벌

❖ 10월 27일 공연 ❖

“문화시민 페스티벌”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어우러지는 소통의 공연

주관 광주광역시 동구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